

폐결핵, 누구냐 넌?

글 □ 안철민(영동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1. 폐결핵이란 어떤 질환인가?

폐결핵이란 폐가 결핵균에 의해 감염된 질환을 일컫는다. 이 결핵균은 비말 핵인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사람이 들이 마심으로 감염이 되며, 약 4-6 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게 된다. 이것을 일차성 결핵이라고 이야기하며, 기왕에 감염되었던 결핵균이 세포 내에서 수면상태에 있다가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데 이것을 이차성 결핵이라고 부르고 있다.

2. 폐결핵은 어떻게 전파되나?

결핵은 첫째로 공기를 통해, 둘째로 직접 접촉에 의해, 셋째로 구강을 통해 전파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공기를 통해, 호흡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핵에 걸린 사람에서 나온 결핵균이 정상인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 와 여기에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핵의 공기 감염은 주로 환자와 가까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데, 즉 환자의 가족, 방을 같이 쓰고 있는 친구, 가정 학교 직장 동료와 관련되어 있다.

때때로 결핵은 비행기 안에서, 교회 집회를 할 때, 술 집, 디스코 집, 그리고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의 집에서도 전염된다. 그리고 외과 의사가 결핵성 림프선 염을 치료할 때 분비물이 공기 중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 개방이 된 지역에서의 감염은 아직 잘 증명이 되어 있지 않으나 환자가 희생자와 가까이 있을 때 기침에 의해 배출되는 결핵균의 양이 많으면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핵에 걸린 것을 모른 채로 지내는 환자와 장기간 함께 지내거나 혹은 접촉하고 있을 때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여러 가지 약물에 저항이 생긴 결핵균을 지니고 있다면 이 균에 감염된 사람은 치명적일 수

있는 데, 이런 경우는 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많은 병원이나 감옥에서, 할머니가 감염된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3. 폐결핵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전염이 되나?

항상 전염이 되지는 않는다. 결핵 중에서 가장 전염력이 높은 경우는 후두 결핵, 기관지 결핵, 공동이 발견된 폐결핵 환자인 데 이들에서 나온 객담에는 직접 도말 검사로 결핵균이 발견되는 율이 높다. 환자의 감염력은 객담에 있는 결핵균의 숫자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 때는 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이 없는 결핵에서 나온 객담은 직접 도말 검사로는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으나 배양 검사에 의해서 결핵균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때에는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을 시킬 위험이 적다. 결핵 치료를 받은 지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99% 이상 떨어지므로 이 때에는 전염력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폐결핵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수건을 따로 쓸 필요는 없는 데, 그 이유는 결핵이 공기 감염을 통해 되기 때문이다.

4. 언제 폐결핵에 잘 걸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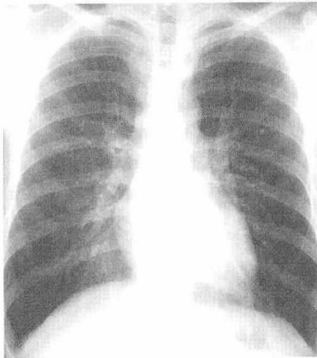
어린이나 노인, 당뇨, 만성 신부전, 알코홀 중독증을 앓고 있는 사람, 과거에 위장 수술을 받았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폐결핵에 잘 걸리기 쉽다. 그리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서 더 많이 걸린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20-30대에도 결핵에 걸린 환자가 늘고, 가난하지 않은 데도 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5. 폐결핵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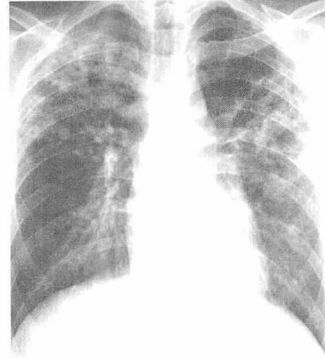
폐결핵에 걸리게 되면 환자는 전신이 피로하게 되고, 밤에 주로 미열이 발생하며, 식욕이 감퇴된다. 급기야는 체중이 많이 감소하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성생활을 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하는 수도 있는 데, 어떤 환자는 담배 맛이 떨어졌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호흡기계의 증상으로는 숨이 차고, 기침을 하며, 가래에 피가 섞이는 때도 있으며 가슴이 아픈 증세를 보인다. 이 때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6. 폐결핵은 어떻게 진단하나?

결핵의 진단은 특징적인 증세, 흉부 X-선, 객담검사, 기타 정밀검사 등을 통해 한다. 먼저 특징적인 증세를 보면 밤에 미열이 난다던지, 전신 쇠약감이 있거나 체중이 감소하는 증세가 있으나 병의 초기에는 증세가 없을 수도 있다. 흉부 X-선 소견으로 병의 심한 정도를 초기, 중등도, 진행이 된 결핵으로 나누기도 한다. 객담 도말 검사나 배양검사를 통해 결핵균이 발견되면 결핵으로 확진할 수가 있으며, 전에 튜베르쿨린 반응이 음성이던 사람이 양성으로 변할 때에도 결핵균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치료를 2주간 해 보아 흉부 X-선 소견이 호전 되면 결핵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 기타 혈청 검사를 통해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 결핵을 진단할 수도 있겠다.



정상 가슴 사진



진행된 폐결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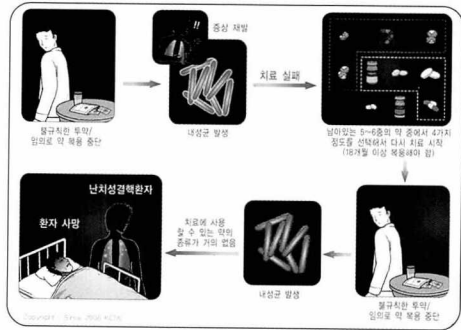
7. 폐결핵은 어떻게 치료하나?

폐결핵은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대부분 점점 심해져 궁극적으로 사망을 함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이 병의 치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항결핵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간혹 수술을 요하는 수도 있다. 이 때 사용하는 일차 결핵 약의 종류로는 나이드라지드, 마이ambut, 리팜핀, 스트렙토마이신, 피라지나마이드가 있으며 이차 약제로는 파스, 1321, 크로세린, 가나마이신 등의 약제가 있다. 항결핵제의 복용 시 약제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이상이 있을 때는 의사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결핵 약의 투약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데, 짧게는 6 개월부터 길게는 1년 6

개월까지 투약하므로 경험이 있는 의사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결핵 약을 빠지지 않고 잘 복용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결핵균이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하는 데 애를 먹는 수도 있다.

8. 결핵 전파는 어떻게 예방하나?

결핵 전파를 예방하는 일은 보건 관계자나 감옥에서 근무하는 간수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결핵전파를 예방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결핵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여 감염 물질의 양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기에 있는 비말 핵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며, 셋째 노동자나 직원으



난치성 결핵 발생 과정

로 하여금 비말 핵을 흡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에 걸린 환자를 직접 찾아 내어 조기에 치료함으로 결핵균을 공기 내로 배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감염력이 높은 결핵 환자는 일정 기간 격리하여 일반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9. 맺으며...

폐결핵이란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 폐를 침범하는 질환을 말하며, 이 병은 공기 감염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핵에 걸리면 야간에 미열이 나거나, 기운이 없거나, 쉬 피곤한 증세를 보일 수 있고, 객혈, 기침 등 호흡기증세를 나타내게 된다. 진단은 특징적인 증세와 더불어 흉부 X-선, 객담 검사를 통해 하며, 혈청 검사나 유전자 검사도 도움을 준다.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항결핵제를 6개월 내지 1년 6개월 치료를 하면 보통 완치가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 치료가 잘 되지 않아 고생을 할 수도 있다. †